

봉제용어의 이해 - 1

일반 봉제공장 또는 맞춤집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봉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. 봉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봉제 제작에 있어서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봉제 습득과정도 느려진다.

1) 가봉 : 의복을 완성하기 전에 몸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입어 볼 수 있도록 임시로 등성등성 시쳐 놓은 바느질의 상태를 말한다.

2) 견본책 : 목록, 샘플, 카탈로그, 특히 상품 목록을 말한다.

3) 겹뜨기(실편 시침): 실편 표시한 시침

4) 겹자락 : 단추가 두 줄로 된 상의

5) 겹누비 : 겨드랑 쪽을 누비는 것

6) 고쳐마르기 : 고쳐서 다시 마르는 일

7) 고침질 : 다시 만지기

8) 주름짓 : 깃에 주름을 잡는 것

9) 구슬 바늘 : 가봉을 하거나 옷을 재단하는 데 쓰는 핀

10) 꼴림 : 한쪽이 잘 붙지 않고 들뜨는 상태

11) 끝박음 : 가장자리 박음 또는 깃박음을 할 때 제일 끝의 박음

12) 깃고대 : 상의 뒤편의 목둘레 또는 돌아가는 선

13) 깃선 : 깃이 달리는 목 둘레선

14) 나뭇질 : 기계 재단을 하기 위하여 천을 여러겹 펼쳐 놓는 일

15) 넷갓춤 : 저고리, 바지, 조끼, 코트를 갓춤

16) 늘품 : 품의 여유분

17) 단주머니 : 주머니 입술감을 상자 모양으로 네모지게 재단해 놓은 것

18) 단추구멍 엮기 : 단추구멍에 휘감을 치는 것

19) 덧심 : 저고리 어깨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덧댄 것

20) 덧주머니 : 덧붙인 주머니 또는 아웃 포켓(out pocket)

- 21) 도련 : 상의 앞쪽 끝선 또는 소매부리나 바지부리선
- 22) 등바대 : 등어깨 안쪽에 대는 천. 주로 작업복이나 와이셔츠에 댄다.
- 23) 띠심 : 벨트 사이에 넣는 심(벤놀)
- 24) 맞은 천 : 바지 주머니의 맞은 쪽에 대는 천
- 25) 맞쫄음 : 단추를 겹쪽에서 보이게 맞쫄어 채우는 식
- 26) 모심 : 털을 섞어서 짠 심감
- 27) 민갓 : 아무 꾸밈도 없는 깃박음
- 28) 민소매 : 소매가 없는 것
- 29) 민깃 : 깃이 없는 것
- 30) 민트기 : 소매부리 위쪽에 솔기가 터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
- 31) 바둑판 무늬 : 바둑판처럼 가로, 세로 무늬가 있는 천
- 32) 배줄임 : 배가 나온 몸에 맞게 입체 처리하는 줄임
- 33) 보정 : 고쳐 마르기 또는 고쳐 짓기
- 34) 본마름 : 본을 의지하여 재단하는 식
- 35) 소매 트임넛 : 와이셔츠 드의 소매트개의 다른 단
- 36) 살줄임 : 바지 앞판의 한쪽을 교환 분량만큼 여유를 만드는 줄임
- 37) 새눈구멍 : 새눈과 같이 둥그렇게 뚫는 단추구멍
- 38) 선깃 : 깃이 곧두선 옷
- 39) 셋갓춤 : 신사복의 상의, 조끼, 바지의 한벌
- 40) 소매산 추김 : 어깨 끝을 추겨 올리고 소매 위쪽이 올라간 식
- 41) 솔기 : 천과 천을 연결하여 박은 자리, 옆솔기, 어깨솔기 등
- 42) 신바대 : 바지부리에 다른 단을 대어 수명을 길게 하는 감
- 43) 안단 : 저고리 안 셔단
- 44) 안설킨 : 안 주머니 앞자리를 안설킨으로 코단같이 다는 식
- 45) 어깨숨 : 어깨에 바쳐 다는 숨
- 46) 어울려 짓기 : 서로 어울려서 만드는 일
- 47) 엇선 : 비스듬히 사선으로 자르거나 꺾맨 옷감의 사선 또는 바이어스

- 48) 운형 : 등바대나 주머니 모양이 산 모양으로 된 것
- 49) 입술천 : 주머니의 양입술을 단으로 대는 감
- 50) 자리잡음 : 다리미로 수축 또는 늘여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
- 51) 접단 : 바지부리의 단을 겹으로 접어 올리는 단
- 52) 젓힘깃 : 깃이 접혀진 모양을 한 것
- 53) 줄무늬 : 호(縞) 길이에 줄이 있는 무늬
- 54) 진동 : 깃고대에서 겨드랑이까지의 치수
- 55) 축임질 : 수증기 또는 물로 직물을 줄이는 작업
- 56) 칼깃 : 저고리의 깃모양이 길고 뾰족한 각으로 된 것
- 57) 커프스 : 소매부리의 다른 단
- 58) 턱밑줄임 : 저고리 앞판 턱밑에 주름을 하는 것
- 59) 털결 : 옷감의 서슬이 한쪽 방향의 결로 되어진 것
- 60) 푸서박기 : 솔기가 풀리지 않게 휘감치며 박음(오버로크)
- 61) 푸서두줄박기 : 솔기가 풀리지 않게 휘감치며 한줄은 본봉박기가 됨(인터로크).
- 62) 혀 : 안감지로 만든 안주머니 뚜껑
- 63) 흘자락 : 저고리 앞이 외줄 단추로 되고 겹치는 설이 좋은 것
- 64) 화장 : 깃고대에서 소매길이를 합친 기장
- 65) 휘감 : 솔기가 풀리지 않게 휘감아 치는 것
- 66) 흰자 : 재단용의 구부러진 자, 곡자

현장에서 주로 과거의 관습에 의하여 일본어의 형태라던가 영어의 변형된 용어가 난무하고 있어 어패럴에 종사하는 사람과 생산업체간의 괴리감이 있어 순화된 봉제 용어를 나열해 보기로 한다.

·가가리[(1)감침질 (2)사뜨기, slanting stitching. Slip stitching]

바느질감의 두 형질의 가장자리를 마주 대고 실의 올이 풀리지 않게 손으로 감아 꿰매는 일

·가기호쿠쓰케[걸(고리), 단추(달기)]

걸어서 잠그게 도니 단추인 훅 앤드 아이(hook and eye)를 다는 것

·가니아시[안짱다리, bowley]

형다리. 안으로 굽은 다리(內輪脚)

·가다다마[흠입술, single besom]

주머니 단을 한쪽 넓이로 넓게 입술을 만드는 것

·가라게[휘감기(맘자), over casting]

·가리누이[가봉(시침 바느질), basting]

양복을 완전히 짓기 전에 몸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입어 볼 수 있도록 임시로 듬성듬성 시쳐 놓은 바느질

·가마[복집]

밑실 북을 거는 부분

·가마후가[진동, depth]

깃고대에서 겨드랑이 선까지의 치수

·가부라[(발)접단, hem turn-up. Cuffs]

소맷부리나 바짓부리의 접어 올린 부분

·가부라나지[민접단]

양복바지 부리의 단을 안으로 접어 올린 부분

·가부라나지[민접단]

양복바지 부리의 단을 안으로 접어 올린 것

·가사네누이[겹쳐 박기]

누름상침술

·가에루마타(즈봉)[개구멍바지]

개구리가 다리를 벌린 것 같은 모양의 바지.

유아용 바지에서 소변을 보기 편하도록 살에서 앞중심선 양쪽 가랑이에 걸쳐 초생달 모양으로 터진 바지이다.

·가에리[아랫깃/라펠(lapel)]

신사복 등에 달린 테일러 칼라의 라펠(lapel)

·가에리센[아랫깃접금, folded line]

아랫깃이 꺾이는 선

·가에리아나[깃구멍/깃눈]

아랫깃의 장식 구멍. 실질적인 단춧구멍의 기능보다 장식용으로 쓰인다

·가에리키자미[깃아귀]

신사복 따위에 달린 테일러 칼라의 깃인 노치 라펠 또는 테일러 칼라(lapel)의 깃에 가위 집을 넣는 것

·가이슈쓰후쿠[외출복, outer garment]

외출복

·가자리미상[장식 박기/상침(上針)]

가장자리의 장식을 나타나게 하는 재봉질

·가쿠시[(호)주머니]

옷에 달린 주머니

·가쿠시지쓰케[숨김 시침질]

접은 여유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안쪽에서 시접을 눌러 박아서 겉에는 작은 바느질 눈이 나오도록 시침질하는 방법

·가타카미[(종이)옷본, paper pattern]]

옷을 짓기 위해서 종이로 옷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본

·가타구세[어깨 줄임/어깨 다트, shoulder dart]

가슴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깨에서 가슴에 걸쳐 옷을 겹쳐 잡아 줄이는 일

·가타구스레[모양 망가짐]

원형이 뭉그러져 버리는 것

·가타누이[어깨 박기, shoulder stitching, shoulder sewing, join shoulder seam]

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을 맞추어 박는 작업

·가타누이메[어깨솔(기), shoulder seam]

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을 맞붙여 박은 솔기

·가타누키[본 따개]

모형을 만들 때 쓰는 기수

·가타다치[본 마름, pattern cutting]

본을 의지하여 재단하는 식(형지 재단)

·가타로쿠[견본책, catalogue]

목록(특히 상품 목록)

·가타마에(편전)[홀여밈(옷)/홀자락, single breasted]

재킷 따위에서 앞길의 단추가 한 줄로 되어 여미도록 된 것

또는 그와 같이 된 옷

·가타사키[어깨끝, shoulder point]

소매의 어깨가 끝나는 부분

·가타센[어깨선, shoulder line]

옆목점에서 어깨의 끝점까지 이르는 길이

·카타쓰케[어깨 박기, shoulder sewing]

어깨 맞추기

·가타아데[등바대]

등어깨의 안쪽에 대는 천

·가타와타[어깨솜(보공), shoulder pad]

어깨에 바쳐대는 솜

가타이레(형입)[옷본 놓기]

옷본을 생천이나 마킹 페이퍼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넣어 가는 작업

·가타쿠즈레[모양 망가짐]

형태가 변해서 제 모양을 갖지 못하고 일그러진 꼴

·가타타마부치[홀입술(주머니)]

호주머니 입구의 한쪽에만 입술을 단 주머니

·가타하바[어깨 너비, shoiulder width]

한쪽 어깨 끝에서 다른 쪽 어깨 끝까지의 치수

·가큐마쓰리[거꾸로 감침]

옷길쪽을 잡고 감침질을 하는 것

·가후스(cuffs)[커프스]

소매의 손목 부분. 끝동. 와이셔츠의 긴소매 끝에 있는 단.

양복바지의 접어 올린 아랫단

·가후스 쓰케[커프스 달기, cuffs sewing]

소맷부리단 달기

·갹바(Capa)[비옷]

·거싯(gusset)[무]

옷을 만들 때 동작하기 편하도록 겨드랑이 안쪽 따위에 덧대는 작은 삼각형의 천

·게나미[털결, brushed]

옷감으로 서술이 결로 되어진 것

·게다하가시[짚단, bottom attack]

짚 단으로 이어 대는 것

·게마와시[도련(둘레)/밑단(둘레)<바지, 치마의 경우>]

코트, 스커트, 드레스 따위와 같은 옷의 아랫단 둘레

·게싱[모심지, wool canvas]

털을 섞어서 짠 심감

·겐보로[보죽단, over lap]

소맷부리에 아귀를 트고 끝이 보죽하게 짠 단을 댄 것.

와이셔츠 소맷부리에 많이 쓰임

·겐보로쓰케[보죽깃/칼깃, peaked lapel]

신사복 등에 달린 테일러 칼라의 일종으로 모양이 칼처럼 보죽하게 생긴 것

·고다치[가위손질, knife cutting, hand cutting]

옷을 만들고 나서 마무리 과정에서 작은 가위로 실밥 따위를 다듬는 작업

·고로시[비벼대기]

속에 들어가 있는 봉환(바느질선)을 겉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손으로 밀어내는 일

·고리뺨[코듀로이, corduroy]

벨벳 비슷한 두툼한 무명 천

·고무라마와리[장딴지 둘레, calf round]

승마복 바지 치수에 필요한 장딴지 치수

·고마타[살기장, crotch]

양복바지의 앞중심의 휘어진 살윗길이선에서 코단(단추나 지퍼를 다는 부분)의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

·고방시마[바둑판 무늬, check plaids]

바둑판 무늬

·고시[허리]

옷의 허리에서 앞부분을 주로 가리키는 말

·고시가타[등어깨, back shoulder]

등 한가운데 진동선에서 어깨를 거쳐 겨드랑이까지 재는 치수

·고시마와리[허리둘레/허리통, waist]

바지·치마 따위의 허리 부분의 치수

·고시센[허리선, 웨이스트 라인, waist line]

양재에서 허리의 잘룩한 부분. 특히 여성복의 허리와 스커트가 접합되는 선

·고시시보리[허리 줄임, waist cut]

허리를 잘룩하게 하는 줄임

·고시우라[허리 안]

허리 안

·고시타케[엉덩이 길이, hip length]

허리선에서 엉덩이 선까지 이르는 기장

·교토시키[가슴풀이(식), chest system]

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재단하는 식

·구리사시[결누비, side quilting]

양복 안 겨드랑 쪽을 누비는 것

·구모가다[운형, pointed yoke]

등바대나 포켓트 모양이 산 모양으로 된 것

·구모에리[구름 깃, ripple collar]

깃에 주름을 잡은 것

·구비마와리[목둘레, neck round]

목둘레의 치수